

“30년간의 대학 평교수직 저의 큰 자랑입니다”

서울대 명예교수

朴 商 朝 교수

대담/박택규<건국대이과대학장/본지편집위원장>

매일 1km정도 도보

선생님 만나 뵈게되어 반갑습니다. 건강해 보이는데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것 같으나 나이가 들면 마음대로 조절하기 어려워요. 세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양을 적게 합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1km정도되는 아파트 주위를 걷고 있어요. 애연가이지만 많이는 안피우고 담배연기를 깊게 들며마시지 않는 습관을 길렀지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골초는 아닙니다. 근래에 귀가 어두워 성당에 가서 신부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졌어요. 일주일에 한번씩 발간되는 주보를 매일 읽으면서 미사에 참가하는 것을 대신하고 있지요.

선생님 어릴 때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유복한 집안의 아들

1908년 5월18일(음력) 서울 중구 다동(茶洞) 88번지에서 태어났어요. 엄친(朴敬洙)께서는 당시 중구 다동에 있던 사립국민학교 교장을 지내신 분으로, 한문에도 능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의(韓醫)



◇ 매일 아침6시에 기상해 1km정도 도보를 한다며 박택규 본지편집위원장에게 건강관리비결을 설명하고 있는 차교수

를 지내셨어요. 진료비를 받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것을 보면서 성장했지요. 요새말로 개화된 유복한 집안의 귀염둥이 아들로 자란 셈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4년제 청계국민학교를 다녔는데 학생들이라야 소수여서 한번 졸업에 겨우 50명정도였어요. 그후 보성고보(현 보성고교)를 졸업했는데 4년

제에서 5년제로 변경되는 바로 그 시점에 5년제 최초의 졸업생입니다. 당시 동기생으로는 그후 성대를 졸업한 이강국(월북), 고유섭(개성 박물관장) 등이 있어요. 3년제 경성고등공업학교 토목공학과에 진학, 1928년에 졸업했는데 당시 보성고보 선생님께서 권유해 입학했지요. 이 학교는 처음에 전문학교였다가 고등



공업.공업전문으로 개칭되었고 그후 해방되면서 공업전문학교로 개편됐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경성공공을 졸업하신 뒤 장장 18년간 현장 토목기사로 근무하면서 철도교량건설 등 우리나라에서 초창기 토목공사를 직접 감독한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당시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18년간 조선철도서 근무

1928년부터 해방 다음해인 46년까지니까 18년간 조선철도(주)에서 기술적으로 근무했어요. 이 회사의 토목공사에 참가했는데 당시 기억되는 공사가 있어요. 개성 다음에 토성이 있는데 여기서 해주로 가는 철로중에 예성강(禮成江) 교량공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철도는 협궤(狹軌), 즉 레일폭이 레일 안쪽거리가 76cm (2feet 6inch)인 것이 있고 보통 철로인 경우 143.5cm인데 예성강교량은 교각거리가 6m인 교각이 10개 놓이는 교량으로써 당시로는 난공사였지요. 그런데 장차 협궤가 광궤(廣軌, 보통레일)로 전환될 것을 예측하여 레일폭을 143.5cm로 고쳐서

쓸 수 있도록 설계하였어요. 즉 침목과 레일만 교환하면 보통레일이 되도록 하였어요. 더욱이 당시는 해주로 가는 도로 교가 없어서 배로 강을 왕래하였는데 이 다리를 놓을 때 양쪽에 1차선씩 도로를 만들어 자동차도 통행이 가능하고 사람도 다닐 수 있게 했지요. 지금 생각해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킨 교량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무척 난공사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지만 인천조수가 9m인데 이 다리를 건설할 때 조수가 심하면 7m나 되었으니 교량건설이 얼마나 어려웠겠는지 짐작할 수 있겠지요. 실제 공사를 시작해서 2년만에 끝났는데공사를 설계, 감독한 것을 자랑스럽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 기억되시는 공사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산철도공사 지휘, 감독

일제때 함경북도 무산철광에 협궤철도가 있었는데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이것으로 운반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

어요. 그래서 광궤로 고쳤는데 설계부터 공사진척을 지휘 감독하였지요. 이때 4km되는 터널을 2개 건설했습니다.

전체 기술은 일본인들의 기술로 충당했으나 나도 제법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요. 기술이 제법 있다고 해서 그런지 일본인들로부터 조선인이라고 멸시당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해방직전 영주에서 춘양까지의 철도공사를 우리 회사에서 맡아했는데 근래에도 더러 가보면 매우 호뭇합니다.

선생님께서서는 1946년 서울대가 국립대로 되면서 공과대 토목공학과에 초빙되어 교수생활을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그때의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졸업수학여행 부부동반

해방 후 군정시대에 기사장으로 미국인들과 함께 1년 남짓 일했고 서울대가 국립대로 된 다음 공대 토목공학과 부교수로 초빙돼 갔지요. 1년 후에 정교수가 되었고 당시 토목공학과에는 34명의 교수가 있었는데 일본제대 출신교수는 없었어요.

나보다 위로 원태상박사(작고), 다음으로 나, 그 다음으로 변보엽교수(작고)가 있었지요. 수학여행을 가는데 학생들이 내자도 함께 가야 한다고 우겨서 부부가 함께 졸업수학여행을 했지요. 이때 제주도나 설악산에 함께 다녔습니다. 요새 지도교수뿐 아니라 사모님을 모시고 수학여행가는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1946년부터 78년까지 무려 32년간 서울대에서 근무하셨는데 평균수직에만 계셨고 보직이라야 학과장 정도만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

정말 정신없이 가르치는 데에만 몰두

하였어요. 교수가 몇분 안돼서 가르치는 일만 해도 벅찼지요.

교수시절에 설계심사위원회에도 관여하였고 설계와 시공 자문에 참여하여 20여년동안 여러 군데에 도움을 주었지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설계도면 등을 내 힘으로 고쳐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했습니다. 동해시멘트(쌍용시멘트 동해공장), 동양시멘트의 건설공사에도 도움을 주었지요.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내가 가르친 제자중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몇명 있어요. 이 사람들 이야기가 선생님은 박사학위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더군요.

결국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았지요. 요새야 박사학위 없으면 교수자리 넘볼 수 없는 세상이지만 나야 이미 교수가 됐으니 꼭 박사학위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지요.

선생님께서서는 정년퇴임하신 후에 토목공학 관계 전문서적을 네권이나 발간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퇴임후 전문서4권 발간

교수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가르치는데 모든 시간을 뺏겼기 때문에 논문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가르칠 교과서가 없던 시절의 어려움을 회상해서 그전부터 집필을 시작했던 것을 65세 정년 이후 그러니까 1980년대에 대부분 발간했어요.

주요한 저서로 네 종류가 있는데 복잡한 구조의 교량의 응력을 알아내는 「부정정구조물(不靜定構造物)」을 비롯해서 「강구조(鋼構造)」 「도로공학(道路工學)」 「시공학(施工學)」 등이지요. 학계의 발전이나 후진들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선생님은 가톨릭신자로서 신앙생활에도 열심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톨릭 세례명 '요한'

15년전에 가톨릭에 귀의했어요. 세례명은 요한이고 내자(金大順)는 세례명이 안젤라이지요. 아내와 함께 들어서 노년을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내 스스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서울대 교수 재직시절 내 자의로 결강한 일은 한번도 없었지요.

공사현장에서 기술감독을 직접 했던 경험과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쳤던 경험으로 보아 우리나라 토목공사의 수준은 매우 높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요즈음 온양온천에 자주 가는데 도로 확장 공사를 보면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러로 잘 밀고 옛날에는 다짐질을 잘 안 했는데 요새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토목기술의 발전과 기술자들의 열의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정성과 땀이 깊게 배여서 많은 공사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믿어요.

선생님, 현직을 보면 박콘건설주식회사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박콘이란 무슨 뜻입니까?

박(朴)씨와 콘크리트 합성어

박콘이라는 회사이름은 박(朴)씨와 콘크리트의 합성약어라고 할 수 있지요. 박씨네에서 공사를 맡아서 콘크리트로 하니까 「박콘」이라는 멋진 이름이 상표처럼 된 거지요. 30년전에 설립된 이 회사는 2개 공장에 엄청난 많은 굴착기계를 갖고 있으며 종업원이 50여명됩니다. 이전에는 교량에 쓰이는 콘크리트틀보를 주로 만들었는데 특히 경부고속도로 교량의 콘크리트틀보도 만들었지요. 큰 건물을 지을 때 땅을 파는 기초공사로서 굴착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전담하는 회

사입니다.

자식자랑을 늘어놓는 것 같지만 5남1녀 중 아들 셋이 서울공대를 졸업했는데 이 세아들과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5남, 그리고 나까지 5명이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요.

내가 이 회사의 상임고문 그리고 장남(鎭泰 65세)이 회장, 차남(希泰 62세)이 부회장, 4남(鍾泰 50세)이 사장, 5남(榮泰 47세)이 부사장으로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덧붙여서 3남(彦泰 55세)은 캐나다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나 자신 전공을 살려서 토목공사 현장에서 일할 수 있었고 30여년간 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할 수 있는 교수직에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을 큰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자기 전공분야에서 부끄러움 없이 합심하여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박콘건설주식회사라는 이름이 전달해주는 강렬한 의미에 느끼는 바가 많습디다만 특히 용감한 5부자, 의리의 5부자, 위계질서가 정연한 5부자 회사에서 선생님의 위치가 더 돋보입니다. 선생님 끝으로 몇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최선의 삶의 자세 강조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남은 여생도 흠을 남기지 않는 삶으로 일관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기술자로서의 근무자세, 학자로서의 품위,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지키면서 한점 흐트러짐 없는 삶을 살아오신 선생님께 독자들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계속 건강속에 보람찬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